

음반을 내면서 - - - -

올해가 2000년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국악에입문한지 올해로 38년이니 남달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주로 국내·외의 연주활동과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느라 음반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전통음악은 악기편성을 달리 하거나 이조, 변조 등을 통하여 음악을 발전시켜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음악도 많은 작곡자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 동안 생각해 두었던 방법들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음반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서울악회 회장 김 정수 교수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 주신 '형애 장학회'에 심심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바라며,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후학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00년 9월

홍 종 진

곡목 해설

1

* 〈유초신지곡〉 - 상령신

유초신지곡, 취태평지곡은 평조영산회상을 아명으로 부를 때 쓰이는 말인데, 유초신지곡은 관악곡, 취태평지곡은 현악곡을 가리키는 곡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평조회상은 이처럼 구분하지 않고 혼합되어 연주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을 대금, 가야금의 2중주로 연주했는데, 음악이 담담하면서도 화평정대하여 마치 봄날에 남녘가 한가로이 정담을 주고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

* 〈경풍년〉 - 우조 두거

이 곡은 대금 독주곡으로 청성곡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다. 삭대엽 즉 자진한잎 중에서 이수대엽의 변주곡의 하나인 두거를 다시 대금에 맞게 한 옥타브 올려 붙였기 때문에 굳세고 힘찬소리와 청아하게 맑고 고운 소리가 어울어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호하는 곡이다.

* 〈수요남곡〉 - 취타, 절화

이 곡은 현행 평조(林鍾調)의 관악취타를 웃조(淸黃鍾調)인 현악취타에 대금, 피리, 해금의 선율을 편곡하여 기존의 거분고, 가야금, 양금, 단소를 합하고, 현악기에 없던 절화를 편곡하여 기존의 관악선율과 합하여 세악편성으로 하였다. 군악곡의 씩씩함과 우렁찬 권마성 소리를 세악으로 편성하여 연주하므로써 잔잔하면서도 산뜻함이 어울어져 잔잔한 감동을 준다.

* 〈대금 독주곡 1번〉 - 特用別曲

작곡: 홍 종진 1986년 1C월

고려시대의 가요 26곡이 시용향악보에 악보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음악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에 시용향악보에 나타난 음악을 연상하면서 “시용별곡”을 만들어 보았다.

이 곡은 시용향악보에서 사용하는 6대강을 사용하여 매 강마다 한 음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전통적 음악리듬인 도드리, 중모리, 엇모리에 얹어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누었다.

* 〈대금 독주곡 2번〉

작곡: 홍 종진 1993년 5월

이 곡은 우리 음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수제천’에서 그 음악의 기법과 6대강

(3.2.3.3.2.3박)을 적용하여 만들어 보았으며,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산조의 리듬과 선율, 그리고 현대적인 연주기법과 민요적인 선율의 배합을 조화롭게 꾸며 보았다. 편안하면서도 잔잔한 1악장과 가볍고 경쾌한 리듬과 선율의 3악장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2악장이 중용의 역할을 하므로서 3악장과 조화가 돋보인다.

* 〈대금 산조〉 - 한범수류

박종기가 처음 만든 ‘대금 산조’는 현재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 강백천류가 있으며, 그 후에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등의 새로운 류가 있다. 한범수는 스승 박종기, 한주환의 가락을 바탕으로 대금 산조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해금 산조, 통소 산조를 만들어 냈는데, 그의 음악은 비교적 단단하면서도 점잖은 〈중고제〉가락으로 되어 있다. 이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로 모두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 〈표정만방지곡〉 - 상령신

일명 표정만방지곡이라 불리어지는 관악영산회상은 세 가지 영산회상 중 가장 돋보이는 곡이다. 특히 관악 전공자는 필히 익혀야 할 중요한 곡목으로 이 중 상영산은 서로의 가락을 주고받는 연음형식으로 피리의 주선율과 대금의 보조선율 또 이 선율을 중간에서 엮어주는 해금의 선율이 듣는 이로 하여금 한층 박진감과 장엄함을 맛볼 수 있게 한다.

* 〈다스름〉 - 우조, 계면

다스름(調音)은 가곡을 하기 전에 음을 고르기 위하여 하는 음악으로 지금은 1.2장 만 주로 연주되고 있으며, 나머지 3.4.5장은 거문고 악보만 전해지고 있다. 이 나머지를 거문고 악보에 맞추어 그 동안 본인이 연마해 온 가곡의 연주경험을 살려 대금 가락을 엮어 보았다.

* 〈청성 염양춘〉 - 계면 두거

이 곡은 “청성자진한잎” 또는 “청성곡”으로 불리는 대금 독주곡의 원형이다. 즉, 청성 자진한잎은 이 곡을 2도 올려서 불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염양춘을 그대로 2도 올려 붙여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성곡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또다른 맛을 재현해 보았다.

* 〈취태평지곡〉 - 상령신

취태평지곡이 기존의 유초신지곡, 중광지곡, 표정만방지곡과 같이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의

한 종류임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음악에서 나타나는 평조단소의 가락은 영산회상의 단소 가락과 같다. 그러나 중광지곡보다 4도 낮아서 저음의 거문고 가락과 단소 가락이 전체적으로 듣기에 평안하고 화평하다.

* 〈대금 독주곡 3번〉 - 꿈

작곡: 홍 종진 1998년 9월

인간에게 꿈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이 될 것인가? 사람은 형체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누구니 간직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주 속에서 맴돌 듯이 꿈과 현실은 서로 넘나들 수는 없지만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등의 관계를 대금선율로 동화시켜 봄으로써 상호교감을 모색하였다.

* 〈진달래 꽃〉

작사: 김 소월, 작곡: 홍 종진 1999년 8월

김소월의 〈진달래 꽃〉은 1922년 “개벽” 지에 처음 실려 세상에 알려 졌으며, 민요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情調)로서 민요적 율조와 민중적 정감을 표출하였다. 이 시는 민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독창적인 율격으로 평가되는 7·5조의 정형시이며, 이 시에 한국음악의 정가 기법을 사용하여 3부분 형식으로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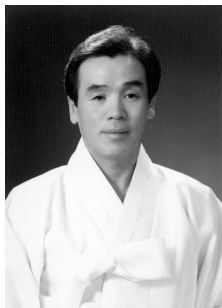
* 〈대금 산조〉 - 한주환류

한주환은 호남의 전통적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달리 예능이 뛰어났다. 그의 산조를 들으면 호쾌하고 힘이 있으며 그 가락이 멋이 있고,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요즘 많이 연주되고 있는 다른 류파의 산조를 들어보아도 그의 산조 가락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현재의 대금산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도와 주신 분

장구 : 김 정수
가야금 : 양 연섭
가야금 : 안 승훈
거문고 : 정 대석
피리 : 박 인기
해금 : 이 기철
단소 : 곽 태규
노래 : 황 숙경

프로필



홍종진 洪鍾鎭 Hong, Jong-Jin

1949년 10월21일 서울 출생

학력

1968년 2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시양성소 졸업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197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 재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재단법인 월하문화재단 부이사장
- 한국월하전통문화원 원장
-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이사
- 서울앙상블 회원
-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회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연주경력

- 1978년 4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예술제 “대금독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1981년 8월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 “대바람 소리” (문예회관) 협연
- 1982년 4월 제1회 대금독주회(국립극장 소극장)
- 1982년 4월 오리엔탈 페스티벌 초청연주(영국, 더함)
- 1989년 11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30주년 기념 연주회
----대금독주(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 1990년 2월 아세이 작곡가 연맹 초청연주(일본, 동경)
- 1991년 10월 한민족 통일음악제 초청연주(북한, 평양)
- 1992년 2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초청연주(미국, 워싱턴)
- 1994년 11월 94' 일요 명인명창 전3인음악회-(국립국악원 소극장)
- 1998년 3월 제6회 대금독주회
- 1998년 9월~10월 한국 국제교류재단 주최, 'Lectures and Performance of Tradition
Korean Music'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초청 순회공연.
- 1999년 5월 독일 하노버 현대음악비엔날레초청 연주.
- 2000년 5월 “2000 대금 축제” 대금독주-하림성(예악당, 국립국악원).

지휘 경력

- 1989년 4월 11일 한국 정악원 연주단 창단 연주회. (국립국악원 소극장)
- 1989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국악제. (이화여대 김영의 홀)
- 1989년 10월~12월 마당놀이 “구운몽” (서울 MBC 문예회관)
- 1994년 4월 26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96회 정기연주회 객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1998년 12월 21일 '98 전통음악과 관현악의 만남. (서울, 정동극장)
- 1999년 10월 6일 시조와 관현악을 위한 전국 순회공연(대전, 부산, 대구, 서울)

ACKNOWLEDGEMENTS

A new millennium has launched this year, the year of 2000, which marks the 38th year since I entered the world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ll these facts bring me a different and fresh feeling.

Looking back, I have mainly devoted myself to teaching students and have not produced an appreciable album. The traditional music has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arrangements of instruments or transposition and variation though not being put well in order. As far as the new compositions are concerned, a myriad of musicians have been setting forth superb work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light of the succession and advancement of the traditional music.

With those aspects in mind, I have taken advantage of the techniques and methods long cherished in arranging the traditional and creative works in my own way.

My cordial thanks go to professor, Chung-Soo Kim, who is chairman of the Seoul Music Committee and has been an enthusiastic supporter for this album and all the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I am also grateful to "HyungAe Scholarship Association," which has financed the album.

Lastly, with regard to some imperfections,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give any advices or comments and I hope that this albu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those who love or study the traditional music.

September, 2000

Hong, Jong-Jin

COMMENTARY ON THE CD PIECES

THE 1ST SERIES

<Yuchoshin-jigok> - Sangryongsan -

Yuchoshin-jigok and Chwitaepyong-jigok are the nicknames of Pyongjo-Youngsanhoisang with the former indicating wind ensemble music, the latter string ensemble music. The currently handed-down Pyongjohoisang, however, is played with no reference to this kind of distinction. Among other pieces, the first piece, Sangryongsan has been played as a duet of a daegum(big horizontal bamboo flute) and a kayagum(12stringed zither), which sounds so serene and peaceful that it can give an image of a pair of lovers having a tête-à-tête leisurely in springtime.

<Kyongpoongnyon> - Ujo Doogeo -

This is a piece for the daegum solo, which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tunes along with Cheongsonggok. Doogeo, one of the variations of Isudaeyop among Sakdaeyops, meaning Jajin Big Leaves, is played being heightened by one octave, which is suitable for the daegum. Therefore, it has been appreciated by many in that the solid and powerful melodies are intertwined with the crystal-clear and soft ones.

<Sooyonamgeuk> - Chwita, Jeolhwa -

This piece has been organized as in Seak in which the current pipe chwita of pyongjo is arranged into the string chwita of wootjo together with a daegum, a se-piri, and a haegum (Korean fiddle) and then arranged for jeolhwa in order for it to be added to the wind music as well as the existing komungo (six stringed zither), kayagum, dulcimer, and danso (small bamboo vertical flute). Since the vigor of the military music and the overtone sound of the Kwomaseong (high-pitched and long shout of the subordinates accompanying high official sin palanquins or on horses to notify their passage) are expressed in Seak, the

combination of tranquility and vividness gives quiet and deep emotion.

<Daegum solo I > - Siyongbyolgok - Composed by Hong, Jong-Jin Oct., 1986

The 26 ballads from Koryo (the ancient Korean state 918-1392) remain in 'Siyonghyangakbo (score)' but much to our regret, the melodies were not passed on. Out of this regret, "Siyongbyolgok" has been brought to light in association with those tunes in Siyonghyangakbo. It makes use of 6 kangs (sections) from the Siyonghyangakbo and one rule of note is respected in every kang as well as possible. The whole music is divided into 4 parts represented in the traditional rhythms, viz., dodeuri, joongmori, and eotmori.

<Daegum solo II > Composed by Hong, Jong-Jin May, 1993

This piece has been composed according to the technique and 6 kangs (sections 3.2.3.3.2.3 time) from 'Sujecheon' with the longest history among others in Korea. With this harmoniously combined are the rhythm and melody of the sanjo, representative of folk music, and modernistic playing techniques and tunes of the Korean folk songs. There is contrast between the 1st movement, the grave and slow tune of which leads to ennui, and the 3rd one with light and blithe rhythm and melody. The 2nd movement plays such a mild role as a medium that the whole music of 3 parts cuts a fine figure.

<Daegum Sanjo> - Han, Beom-Soo style -

'Daegum Sanjo,' known to have been created by Park, Jong-Ki, is classified into Park, Jong-Ki, Han, Joo-Hwan, Han, Beom-Soo, and Kang, Baek-Chon styles to which the new styles of Seo, Yong-Seok, Lee, Saeng-gang, Won, Jang-Hyun, etc. are added. Han, Beom-Soo composed the daegum sanjo based on the tunes by his teachers, Park, Jong-Ki and Han, Joo-Hwan. Besides he created haegum sanjo and toongso (big bamboo vertical flute) sanjo. His music is relatively formal and is made in 'Joonggoje' melody which is grave and decent. This sanjo is characterized by the 5 movements, i.e., jinyang, joongmori, joongjoongmori, slow jajinmori, and jajinmori.

THE 2ND SERIES

<Pyojeongmanbang-jigok> - Sangryongsan -

Pyojeongmanbang-jigok is the most outstanding piece among the 3 'Youngsanhoisangs'. It is especially required most for those majoring in wind music. Among others, Sangryongsan is full of give-and-take melodies, which is in need of reciprocal harmony. It gives comfort by interlacing the main tune of the hyang-piri, the complementary melody of the daegum, the moderating haegum, and the chang-gu.

<Daseureum> - Ujo, Kyemyonjo -

Daseureum (tuning) is defined as an orchestral music which is to regulate tone ahead of the songs with si-jeos (poems). These days, only 1 and 2 chapters are played and 3 to 5 chapters are known merely by their komungo score. In accordance with these komungo scores not having been played before, I placed it on daegum melodies grounded in plentiful experience of playing songs.

<CheongSung-Yeomyangchoon> - Kyemyon Doogeo -

This is a prototype of the daegum solo, called alias "CheongSung-Jajin-Hanyip" or "CheongSung-gok." CheongSung-Jajin-Hanyip is played by 2-degrees above, which is not the case with the overall piece if examined in detail. Therefore, I attempted to play Yeomyangchoon by 2-degrees upper than it used to be. The resulting melody is similar to that of CheongSung-gok on the whole but some of it is so different as to claim freshness.

<Chwitaepyong-jigok> - Sangryongsan -

It became widespread knowledge that Chwitaepyong-jigok is one of Youngsanhoisang music along with the existing Yuchoshin-jigok, Joonggwang-jigok, and Pyojeongmanbang-jigok. The melody of the pyongjo-danso in this pie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danso in Youngsanhoisang. The tune, however, is 4-degrees lower than that of

Joonggwang-jigok, which gives the feeling of comfort and peace at large on the melodies of the bass komungo and danso.

<Daegum Solo III> - Dream -

Composed by Hong, Jong-Jin Sep. 1998

What if there is no dreams to human beings? Everybody cherishes the very thing that is formless and intangible. While time and space can be mingled in the universe, dream and reality cannot infringe on each other, still closely related to mankind. By assimilating this kind of relationship through the melodies of a daegum, this piece searches for the mutual rapport.

<Azalea Flower> Poem by Kim, So-Wol

Composed by Hong, Jong-Jin, Aug. 1999

'Azalea' by Kim, So-Wol came into being in the literary magazine "Kaebyok (Creation)" in 1922. Traditional folk poet, So-Wol had represented not only the traditional feeling of "Han" but the versification of ballads and grass-roots sentiment through a feminine tone. This is a set-form verse of 7 · 5 (alternate lined) meter, which is evaluated as a unique meter while being a successor and developer of the traditional folk songs. With the Jeongga techniques of the Korean music used in it, this poem has been expressed in 3 parts.

<Daegum Sanjo> - Han, Joo-Hwan style -

Han, Joo-Hwan, from a traditional shaman family in the Honam district, was the second to none when it comes to art. His sanjo is heroic and strong and the tunes are refined and well-organized. Most of the current styles of sanjo have a tinge of his sanjo melodies, which indicates how much his style has influenced upon the daegum sanjo.

RESUME

NAME IN FULL : Hong, Jong-Jin
DATE OF BIRTH : Oct. 21, 1949, Seoul, Korea

EDUCATIONAL BACKGROUND

Feb. 1977 :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Graduation
Feb. 1972 : Dept. of Korean classical music,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Graduation
Feb. 1968 : The training school for national musicians attached to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Korea Graduation

EXPERIENCE OF PERFORMANCE

May 25 - Jun. 3, 2000 : Invited recital in memory of the 50th anniversary of America's entr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Detroit, University of Notre Dame)
May 24, 2000 : "Hanmseong," "Daegeum" (a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recital at the Daegeum festival (Yeakdang,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eb. 18 - 27, 2000 : Invited recital at the University of Hawaii
Jan. 23 - 31, 2000 : Invited recital tour in the Netherlands (Maastricht, Eindhoven, Amsterdam, Antwerp, Hague, Utrecht)
Oct. 3, 1999 : Invited recital from the 54th Arts Festival by the Culture Administration, Japan
Jul. 12, 1999 : Daegeum play in the Byung-Gi Hwang's Kayagum (the Kaya harp) recital during the Tokyo Summer Festival '99

- Jun. 11 - 13 : 'Folk Music' performance invited by Tokyo, Japan
 May 24 - 28, 1999 : Play invited by the Contemporary Music Biennale, Hanover, Germany
- Apr. 1999 : Recital invited by the Pohang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Sep. 24 - Oct. 6, 1998 : Recital tour, 'Lectures and performanc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hosted by the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of Korea (invited by Germany, Norway, Sweden, and England)
- Mar. 24, 1998 : Jong-Jin Hong's Daegum Solo at Umyundang, N.C.K.T.P.A, Korea
 Feb. 25, 1998 : Concert for the Korea-Japan Musical Exchange at Juakdang, Tokyo Conservatory
- Mar. 24, 1998 : The 6th Daegum Solo.(Umyundang, N.C.K.T.P.A, Korea)
 Feb. 25, 1998 : Invited concert during the music exchange between Korea & Japan (Tokyo, Japan)
- Sep. 26, 1997 : The concert of the national music as a part of the 295th cultural events by KAIST (auditorium of KAIST)
- Nov. 27, 1994 : Performance of the celebrities of the year '94 on Sundays -- Triple Concerts (Umyundang, N.C.K.T.P.A, Korea)
- Feb., 1992 : Invited recital by the Smithsonian Museum, America (Washington, D. C.)
- Oct., 1991 : Invited recital at the concert for the unification of Han race (Pyongyang, North Korea)
- Feb., 1990 : Recital invited by the Asian Composers League (Tokyo, Japan)
 Nov., 1989 : Recital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dept. of the National Music at the Music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aegum Solo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Feb. 21, 1988 : Grand concert in remembrance of the newly built building to N.C.K.T.P.A, Korea -- Daegum Solo (Umyundang, N.C.K.T.P.A, Korea)
- Apr. 12, 1983 : The 1st Daegum Solo. (Umyundang, N.C.K.T.P.A, Korea)
 Jul., 1982 : Recital invited by the 3th Oriental Music Festival (Durham, England)

Aug. 1, 1981 : The 1st Korean National Music Festival -- cooperative recital of
"The Sound of Bamboo Wind" (Arts Hall)

EXPERIENCE OF CONDUCTING

Oct. 14, 1999 : The nationwide recital tour for the sake of shijoes (poems) and
orchestral music (Yeakdang, N.C.K.T.P.A, Korea)
Dec. 21, 1998 : The Rendezvous of the Traditional & Orchestral Musics
(Chongdong Theater, Seoul)
Apr. 26, 1994 : The guest conductor of the 196th periodical concert by Seoul
Municipal National Music Orchestra (the Grand Hall, the Sejong
Cultural Center)
Oct. - Dec. 1989 : Madang Nori (play of episodes), "Kuwoonmong" (The Dream
amid Nine Clouds) (the MBC Arts Hall, Seoul)
Oct., 1989 : The national music festival in memory of the 100th anniversary of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its opening (Kim, Young Yee's
Hall, Ewha Womans University)
Apr. 11, 1989 : The inaugural concert by the Korean National Classical Music
Orchestra (Umyundang, N.C.K.T.P.A, Korea)

Thanks to

chang-gu : Kim, Chung-Soo
kayagum : Yang, Yeon-Sop
kayagum : Ahn, Seung-Hoon
komungo : Chung, Dae-Seok
piri : Park, In-Ki
haegum : Lee, Ki-Sul
danso : Kwak, Tai-Gyu
song : Hwang, Sook-Gyung

형애(亨愛) 장학회

一沙 최형규 선생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으시어 1977년부터 매년 상당수의 학생을 지원하여 오시다가 1993년 사재를 출연, 재단법인 형애(亨愛)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학기별 연 인원 258명의 학생(학사, 석사, 박사과정)에게 학비 전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CD도 한국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형애장학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HYUNG-AE SCHOLARSHIP FOUNDATION

President IL SA Choi Hyung-Kyu, who had real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earlier, had been supporting a number of students since 1977 and on June 23, 1993 with his own property he founded HYUNG-AE SCHOLARSHIP FOUNDATION which has provided full scholarship to total of 258 students.

This CD has been produced with the support of HYUNG-AE SCHOLARSHIP FOUNDATION which is putting effort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